

# 남묘호렌게교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궁금해하는 친구들과 주변사람들은 종종 ‘남묘호렌게교’가 무슨 뜻이냐고 묻곤 합니다. 이것은 간단히 혹은 대충 대답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마 니치렌 대성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최고의 해답일 수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남묘호렌게교라고 부르는 이외의 유락(遊樂)은 없는나라.” (어서 1143 쪽) 라고 하셨으며, 또한 인생에는 자연히 기쁨과 고통, 희망과 절망들로 가득 차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더 깊고 지속적인 행복이 존재한다고 설하셨습니다. 이것을 대성인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시적인 행복과 불행의 고리를 초월하는 “자수법락(自受法樂)” (어서 1143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남묘호렌게교라고 봉창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생명에 깊이 내재된 지속적이며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 법화경의 제목

대성인은 어서를 통해서, 남묘호렌게교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석가모니 부처의 최상의 가르침인 법화경의 제목이 바로 남묘호렌게교입니다. 법화경의 범어(고대 인도어) 제목은 사다마-분다리카경입니다. 저명한 4 세기의 고승이며 번역가인 구마라습은 법화경의 제목 문자에 담긴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를 범어에서 중국어로 옮겨 ‘Miao-fa-lien-hua-ching’ 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일본어로 바로 이 중국어 문자를 발음한 것이 남묘호렌게교입니다.

그런데 대성인에게 있어, 이 문구는 무언가 불경의 제목 이상의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대성인에게서 묘호렌게교에 나무(‘남’으로 발음)를 추가하신 것은 이런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나무 혹은 남이란 범어의 나마스(namas)에서 온 것입니다. 이는 귀명(목숨을 바치다)이라는 뜻입니다. 대성인은 ‘귀명(歸命)’에서 “귀(歸)라 함은 적문불변진여(迹門不變眞如)의 이(理)에 귀의(歸依)함이며” (어서 708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명(命)이란, 이러한 원칙에 귀의하였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진리와 기능을 이해하는 지혜에 기반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남묘호렌게교라는 절대진리 혹은 생명의 원칙이라는 묘법에 기반한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최고의 가치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나무(南無)란 범어(梵語)이고, 묘호렌게교(妙法蓮華經)는 한어(漢語)이니” (어서 708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성인에게서는 남묘호렌게교의 가르침이 어떤 특정 언어나 문화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쳤습니다.

13 세기 일본의 대성인에게 있어, 한자는 동양의 언어와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었으며, 범어(고대 인도어)는 서양의 언어와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동양과 서양의 언어가 합쳐진 남묘호렌게교의 문구는 전 인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계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이러한 묘법의 법리를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인류의 행복을 위해 홍교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법화경의 예언대로 법화경의 보신(올바르게 정진하는 수행자)으로서 가혹한 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법화경을 생명을 걸고 몸으로 신독하였던 것입니다. 즉 대성인에게서는 생명의 원리인 묘호렌게교와 불이의 경애를 완전히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성인에게서 말씀하신 “부처의 어의(御意)는 법화경이며, 니치렌의 혼(魂)은 바로 남묘호렌게교이니라.” (어서 1124 쪽)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를 위해 생명을 통해 법을 용현 해내셨기 때문에, 대성인이 말세의 진정한 어본볼로 존경받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묘호(妙法)의 묘(妙)는 “놀라운/경이로운” 혹은 “묘한” 이란 뜻입니다. 호(法)는 “법”, “원리”, “가르침”, 혹은 “현상” 을 가르칩니다. 합쳐서 묘호(妙法)는 “경이로운 법” 또는 “묘법” 이란 뜻입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 “묘(妙)란 법성(法性)이고 호(法)란 무명(無明)이며 무명(無明) 법성(法性)이 일체(一體)임을 묘호(妙法)라 하느니라.” (어서 708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묘호(妙法)는 부처의 깨달음과 범부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며, 둘이 원래는 하나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불교가 부처와 범부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 반면, 니치렌 대성인은 둘 사이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가령 “생사일대사 혈맥초” 에서 대성인은 “구원실성(久遠實成)의 석존(釋尊)과 개성불도(皆成佛道)의 법화경(法華經)과 우리들 중생(衆生)의 셋은 전혀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여, 남묘호렌게교라고 봉창하는 바를 생사일대사의 혈맥이라고 하느니라.” (어서 1337 쪽)라고 설하셨습니다.

대성인은 또한 “묘(妙)는 사(死)요 법(法)은 생(生)을” (어서 1336 쪽)이라고 쓰셨으며, “일생성불초” 에서는 “불가사의(不可思議)함을 묘(妙)라고 이름하고, 이 묘(妙)한 마음을 이름하여 법(法)이라고도 하느니라.” (어서 384 쪽)이라고 설하셨습니다. 한편, 묘호(妙法)는 또한 생(生)에 표출되며 사후에 지속해서 명복되는 생명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렌게(蓮華)는 말 그대로 “연화(연꽃)” 를 뜻하며, 니치렌 불법(佛法)에 있어 매우 심오한 뜻을 지닙니다. 연화(蓮華)는 꽃과 열매(씨앗)를 동시에 맺기 때문에 인과구시(因果俱時)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꽃과 열매(씨앗), 즉 인(因:원인)과 과(果:결과)로써 대성인은 이를 “일체(一體)” (어서 708 쪽)라고 설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인(因)이란 부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수행하는 것을, 과(果)란 실제로 불성(佛性)을 득한 모습을 가르칩니다.

인과구시(因果俱時)란 우리가 삶을 변혁하고자 남묘호렌게교라고 봉창하는 바로 그 순간, 용기, 자비, 그리고 지혜라는 부처의 생명 경애가 우리들 생명속에 새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교(經)란 대성인께서 “교(經)란 일체중생의 언어(言語), 음성(音聲)을 교(經)라고 하느니라.” (어서 708 쪽)라고 기술하셨습니다. 교(經)는 문자 그대로 “가르침” 이며, 여기서 가르침이란 부처의 목소리를 가르칩니다. “성불사(聲佛事)를 함을 이름하여 교(經)” (어서 708 쪽)라고 대성인은 설하셨습니다.

이는 즉 남묘호렌게교라고 봉창하고 타인에게 이를 전하는 우리의 소리가 나와 타인과 환경속에 불계를 용현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대성인께서는 다양한 방법과 관점으로 남묘호렌게교의 각 법문과 문구 전체의 중요한 의미를 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묘법에 우리의 생명을 귀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러한 법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행복과 성장은 물론, 타인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천태와 같은 이전의 승(僧)등이 “남묘호렌게교라고 부르셨는데 자행(自行)을 위함이었지, 널리 타(他)를 위하여 설(設)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이행(理行)의 제목(題目)이 아니라, 말법(末法)에 들어와서 이제 니치렌이 부르는 바의 제목(題目)을 전대(前代)와는 달리 자행화타(自行化他)에 걸쳐 남묘호렌게교이며” (어서 1022 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제목(題目)을 부를 때 무엇을 유념해야 할까요?

니치렌 불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오직 우리가 부딪치는 일상의 어려움에 불법을 적용하고 행동할 때만이 비로소 남묘호렌게교의 진정한 힘을 표출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성격, 공덕, 그리고 승리를 통해서 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제목과 신심에 있어 “마음(우리의 목적과 결의)만이 중요하니라” (어서 1192 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타인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와 타인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결의로,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대로 제목을 부른다면, 반드시 제목의 힘의 분명한 실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케다 SGI 회장은 성공과 실패, 기쁨과 고통의 경계를 긋는 것의 어려움을 말한 뒤, “남묘호렌게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완전한 승리의 길로 인계합니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숭고한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사덕(四德)으로 충만한 중요한 생명경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남묘호렌게교의 신심을 지닌 여러분들은 최고의 부와 최고로 화려한 집을 소유한 사람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묘호렌게교는 생명이며 우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남묘호렌게교라고 봉창하는 이상 걱정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성인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심과 수행의 목적은 인생의 행복과 승리를 쟁취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말세 영원의 본불이신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진실입니다. (월드트리분 2010년 3월 5일자)

이케다 회장의 리더쉽과 함께, SGI 회원들만이 니치렌 대성인의 어유명대로 남묘호렌게교의 전세계적인 유포를 위한 광선유포에 매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지구적 규모의 인류를 위한 묘법의 공덕의 실증을 보여오고 있습니다.